

## [QT 세미나]

###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상규 목사 / 2000/ 페이지수: 2

큐티를 말함에 있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핵심구절 중 하나가 신명기 8장 3절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요컨대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간의 만나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사람이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만나를 먹는 것이 사람이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우친다는 것인가?

#### **‘만나’와 ‘말씀’의 관계**

이 해답은 출애굽 한달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떡’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치신 규례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그때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거두되 6일동안 여호와께서 명하신대로만 거두면 남음이나 부족함이 전혀없이 모두 각자에게 만족스러웠고(출 16:16-18), 반대로 여호와와 명을 어기고 욕심을 부려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출 16:19, 20). 또한 여섯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니 만나를 ‘아침까지 간수하였음에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는’(출 16:24) 표적을 경험하였는데 이로인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단순히 ‘떡’ 대신 ‘만나’를 먹었기에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산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 **순종에서 오는 안식**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6일동안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하셨다고 언급된 창세기의 “안식일”에 관한 표현(창 2:2,3) 이후로는 최초로 “안식일”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출 16:23)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기록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굶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출 16:23)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광야 40년동안 “6일-안식일”의 틀 속에서 만나를 통해 사람이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

치시고자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을 훨씬 넘어서서, 창세기 1장에서 6일동안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가라사대”(창 1:3, 6, 9, 11, 14, 20, 24, 26, 28, 29)하심으로 창조하셨고 7일째에는 복된 안식을 누렸던 창세기의 저 심원한 원형적 삶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었다.

:+ : 큐티란 무엇인가

“QT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뜻, 계획)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하는 경건훈련이다”

\* 출처 : Q T 신 문 (2000. 12. 31)